

# 중소 “주52시간 도입하니 수당없어 줄퇴사… 규제 개선을”

## 중기중앙회 등 16개 단체, 이영 장관과 노동규제 개선 토론회

“정부의 방침대로 주52시간제를 시작했더니 일 잘하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더라. 잔업수당이 없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면서 말이다. 전체 직원의 60%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우리 회사엔 큰 타격이었다. 노동정책을 잘못하면 기업이 순식간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도 시도했지만 역시 가동하는 동안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그마저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주52시간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보도블록 제조 중소기업 대표 박문석 대표)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관련 애로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을 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은 “업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일할 시간이 없어 받은 일감을 포기하고, 근로자는 일할

수당줄어 ‘투잡’ 뛰는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자 떠나면서 인력난

월 단위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중소 주52시간제 개선 목소리  
이영 “제도 개선 관철 총력” 강조

수 없어 플랫폼 노동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월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도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들의 살길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경숙 부회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덕재 부회장, 이노비즈협회 이기연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경직된 주52시간제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 일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는 “마트는 대부분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이다. 주 60시간을 일하면 보통 월 380만원의 임금을 가져간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월 300만원 정도로 깎인다. 마트 직원 대부분은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50대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결국 매장 직원들은 퇴근 후 또다른 일을 통해 줄어든 월급을 보전해야한다. (쉬면서) 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사람과 (연장근로를 통해) 고임금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한다. 이 역시 근로자와 마트 관리자가 합의로 결정해야한다”고 토론했다.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론회는 주 52시간제 개선이 주를 이뤘다.

올해 초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제언’에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1주 12시간 한도→노사합의시 월 52시간 한도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올해 말 일몰→50인 미만 사업장 항구 적용)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 유연화(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사업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주요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 등의 건의도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해 20년 동안 기업을 한 나로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권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성과 소진공, 총 133명 신규 채용

대전·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취업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해 6월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대전·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총 133명을 채용했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일 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진공은 지난 6월 고용부 대전지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반기 채용한 113명은 올해 6월부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간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하반기 인턴은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 20명을 우선 채용해 지난 달부터 3개월간 공단 본부와 지역 센터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

원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 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턴들은 공단 채용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수료자의 경우 서류전형 3%, 우수 인턴은 서류전형 5%를 포함해 필기·면접전형에서도 3% 가점을 받는다.

앞서 소진공은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 숙련도가 향상된 일 경험 인턴 총 8명을 상반기에 채용했다.

소진공은 일 경험 인턴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초빙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직원과의 일대일 밀착 멘토링 등을 제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견련, 우수 기업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성장성·대내외 평판 등 확인 가능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우수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정보 패키지를 제공한다.

중견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직자와 중견기업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중견기업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정보 코너’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채용 정보 코너’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삼익THK, 뷰웍스 등 산학연 전문가위원회가 성장성, 일자리 창출 노력, 대내외 평판 등을 종합해 선정한 35개 우수 중견기업의 채용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기업 선정 시 전문 역량을 갖춘 고졸

## 귀뚜라미, ‘거꾸로 뉴 콘텐츠싱 L10’ 출시

귀뚜라미가 스마트온수 기능을 장착해 온수 품질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모델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가스보일러(사진)’를 출시했다.

5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거꾸로 NEW 콘텐츠싱 L10 가스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低NOx) 국내 기준 1등급으로 환경부 친환경 인증 기준치를 충족하는 친환경보일러다.

특히, 소비자가 온수를 사용하는 시

간 채용 정보 코너’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온수 기능은 사용자의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빠른 온수를 내보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수일에 걸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예상 시간 30분 전부터 열교환기를 예열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제품은 귀뚜라미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계승한 저탄식 제품으로 난방 성능도 매우 우수하다.



신제품은 귀뚜라미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계승한 저탄식 제품으로 난방 성능도 매우 우수하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새벽 ‘브라질전’ 광화문 거리응원 1.5만명 예상… 경찰 460여명 배치 /사진 뉴스스  
▲ 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 제재 언급은 부적절”

▲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총력투쟁대회… “尹정부 반노동 저지”  
▲ 화물연대 총파업 지속, 물류 피해 확산… 시멘트·항만은 회복세



▲ 이태원 참사 유족 단체 “여당, 면담 요청 알고도 응하지 않아”  
▲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상담소 14곳으로 확대 /사진 뉴스스